

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제 목 : [BOK 강원경제 메모 5호] 최근 강원지역 가계부채 현황 평가

①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최근 강원지역 가계부채 상황을 양적·질적 지표\*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

\* 양적지표 : GRDP대비 가계부채비율, 질적지표 : 신용등급별, 취약차주별, 연령대별 가계부채 상황

② 다만 최근 경기 부진 등으로 취약차주와 고령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유의

③ 향후 지역내 가계대출 부실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비은행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유도 등을 통해 고령층 차주의 노후자금 조달여력을 확대할 필요

※ 주요 내용은 <붙임1> 「BOK 강원경제 메모 <2023-5호>」 을, 보다 자세한 내용은 <붙임2> 「최근 강원지역 가계부채 현황 평가」 를 참조

한편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강원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8월부터 [BOK 강원경제 메모]를 작성

문의처 : 기획금융팀 과장 정용준

Tel : (033) 258-3291 Fax : (033) 258-3239 E-mail : gangwon@bok.or.kr

“한국은행 강원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/gangwon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**BOK**  
**강원경제**  
**메모**  
<2023-5호>

한국은행 강원본부  
기획금융팀  
2023년 11월 15일(수)  
작성자: 정용준 과장  
(033-258-329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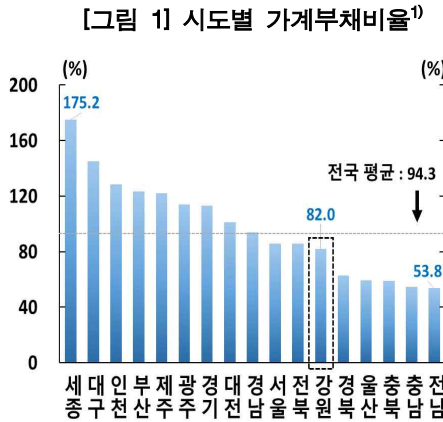
**최근 강원지역 가계부채 현황 평가**

- 강원지역 가계부채 상황은 GRDP대비 가계부채비율 등 양적 지표와 신용등급별 등 질적 지표 모두 전국 대비 양호
- 다만 취약차주와 고령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한 점에는 유의
-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일부 비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유도 등을 통해 고령층을 지원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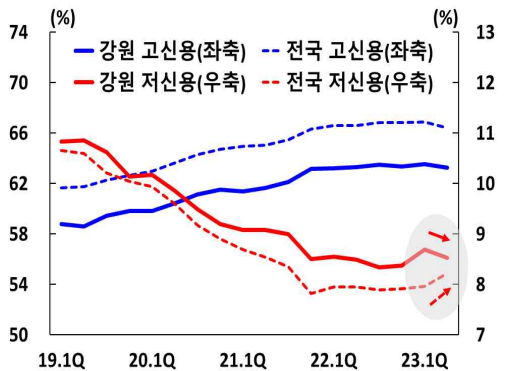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GR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7개 시도중 12위이며 전국 평균을 12.3%p 하회

강원지역 GR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양호

전국 저신용 차주 비중이 증가한 것과 달리 강원지역은 감소



[그림 2] 강원지역 저·고신용 차주 비중



[그림2] 역내 저신용 차주 비중은 감소(0.2%p)한 것과 달리 전국은 증가(0.2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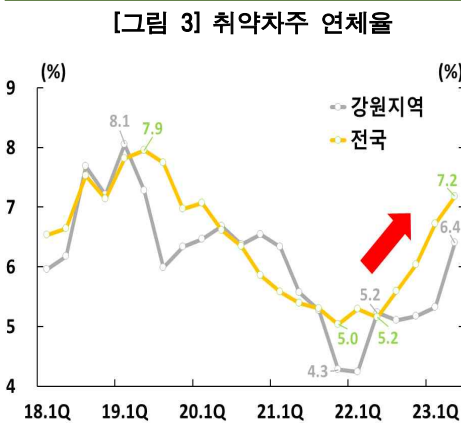
주: 1) GRDP는 '21년, 가계부채는 '23.2분기 기준  
자료: 한국은행 가계부채DB

자료: 한국은행 가계부채DB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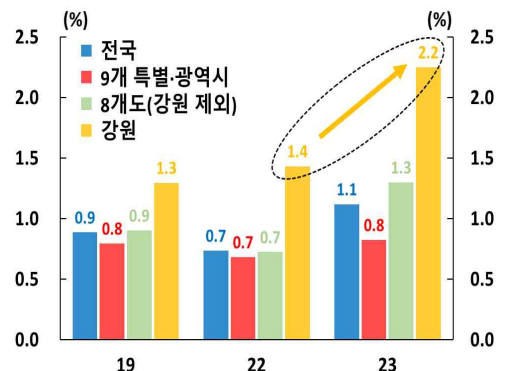
[그림3] 최근 지역내 취약차주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(5.2%→6.4%)

다만 취약차주 연체율은 최근 1년간 빠르게 증가

고령층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



[그림 4] 시도별 고령층 연체율



[그림4] 최근 1년간 역내 고령층 연체율도 여타시도 대비 빠르게 상승(1.4% → 2.2%)

자료: 한국은행 가계부채DB

자료: 한국은행 가계부채DB

# 최근 강원지역 가계부채 현황 평가

2023. 11.

한국은행 강원본부

작성자 : 기획금융팀 정용준 과장  
김효정 조사역

# 1. 검토배경

□ [가계부채 우려 확대]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수준\*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주택가격 반등 조짐이 나타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확대

\* 주요국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순위('23.1분기 기준):

1위 스위스(128.0%), 2위 호주(110.6%), 3위 캐나다(101.9%), 4위 한국(101.5%)

○ (주택가격 상승시 가계부채 증가) 최근 전국과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\*하였는데 주택가격 상승시 주택관련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경향

\*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추이(% , 전월비):

전국(6월 -0.0 → 7월 +0.1 → 8월 +0.2 → 9월 +0.4),

강원(6월 -0.1 → 7월 -0.1 → 8월 +0.1 → 9월 +0.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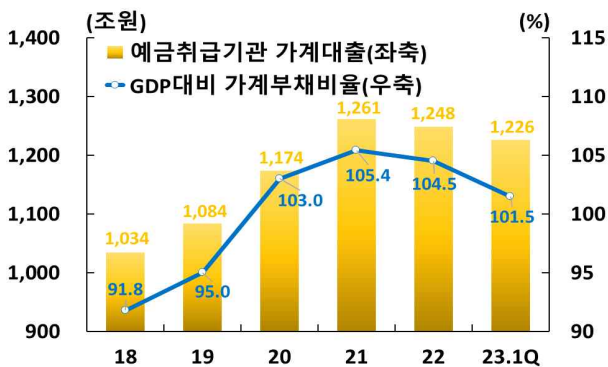
○ (지나친 가계부채는 경제에 부담)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누적되면, 중장기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가계소득 감소로 대출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

— 다만 최근 연체율 상승\*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및 강원지역 금융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

\* 최근 1년간 연체율 추이('22.2/4 → '23.2/4): 전국(0.7% → 0.9%), 강원(0.9% → 1.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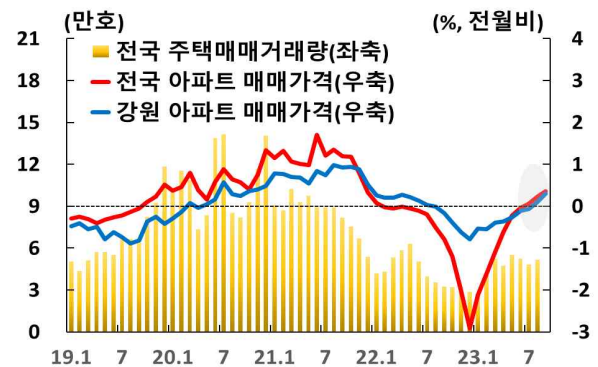
⇒ 강원지역의 가계부채 상황을 양적·질적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

우리나라 명목 GDP대비 가계부채비율



자료: BIS, 한국은행

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<sup>1)</sup>



주: 1) 거래량은 '23.8월, 매매가격은 '23.9월 기준  
자료: 통계청

## 2. 강원지역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 평가

□ [GR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] '23.2분기 강원지역의 GRDP대비 가계부채비율(82.0%)은 높은 수준이나 전국(94.3%)\* 대비 양호

\* 본고에서는 통상적 관례를 따라 지역간 비교를 위해서는 가계부채DB와 '21년도 GRDP통계를,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자금순환통계와 해당년도 GDP를 활용

○ (규모와 비율 모두 전국 하위권) 17개 시도중 강원지역의 가계부채 규모(38.7조원, 14위)\*와 GRDP대비 가계부채비율(12위) 모두 낮은 편

\* 국내 금융기관 차입인구의 2.4%에 해당(약 110만명)하는 표본을 통해 시산. 자세한 내용은 '<참고> 한국은행 가계부채 DB 개요'를 참조

— 다만 GR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0%를 초과하고 있어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라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\*에 유의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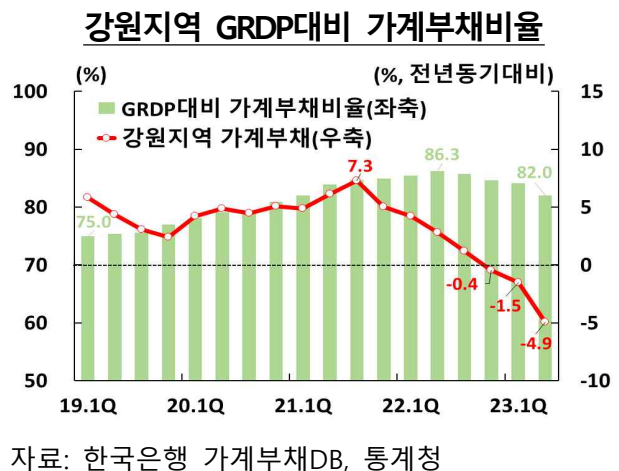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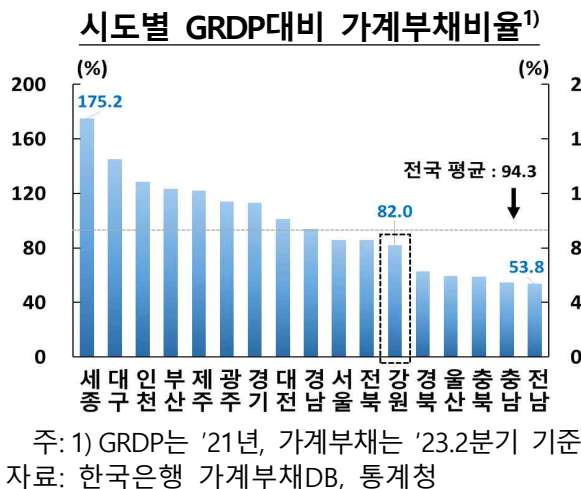
\* "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"(권도근 외, BOK 이슈노트 제2023-14호)

○ (최근 가계부채 감소) 또한 GR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'22.2분기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등 가계부채가 규모면에서 점차 개선

— 부채 총량 기준으로 작년 4분기 이후 신용대출\*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세\*\*를 지속

\* 강원지역 신용대출 증감률(%): '22.4/4 -4.9 → '23.1/4 -7.1 → '23.2/4 -10.3

\*\* 강원지역 가계부채(조원): '22.4/4 40.0 → '23.1/4 39.7 → '23.2/4 38.7



### 3. 강원지역 가계부채의 질적 구성 평가

◆ 신용도별, 취약차주별, 연령대별 등을 고려할때 강원지역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전국에 비해 모두 양호한 상황

- 다만 최근 들어 고령층 및 취약차주 등의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빠른 점에는 유의할 필요

① [신용도별\*] 금년들어 저신용 차주 비중이 감소하고, 지급보증서 담보 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등 대출상품 구성도 개선

\*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척도로 신용점수 1,000점~840점을 고신용, 839~665점을 중신용, 664~0점을 저신용으로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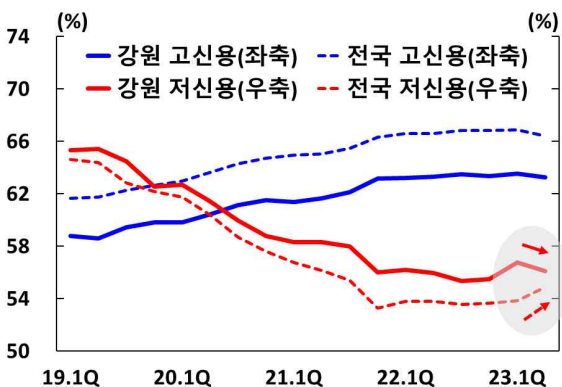
- (차주 구성비 양호)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저신용 차주 비중이 전국 (1/4 8.0% → 2/4 8.2%, +0.2%p)과 달리 감소(8.7% → 8.5%, △0.2%p)

- (대출상품 구성 개선) 아울러 최근 저신용 차주 가계대출이 상환 가능성이 높은 지급보증서담보대출 중심으로 늘어나면서\* 비중이 확대 (1/4 17.8% → 2/4 20.1%, +2.3%p)

\* 저신용 차주 대출종류별 증감률('23.2분기 기준)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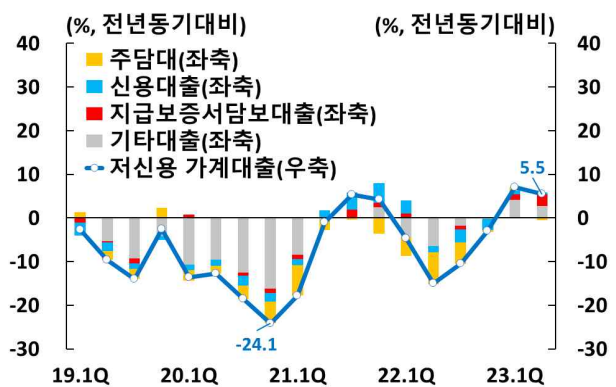
주담대 -2.9%, 신용대출 +1.4%, 지급보증서담보대출 +53.4%, 기타 +5.5%

고·저신용 차주 구성비 변화



자료: 한국은행 가계부채DB

강원지역 저신용 차주 대출종류별 증감률



자료: 한국은행 가계부채DB

② [취약차주별\*] 또한 취약차주 가계부채 잔액도 4분기만에 감소(전년동기 대비)로 전환

\*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저신용 또는 저소득 차주로 정의

○ (최근 대출액 감소) 전국 취약차주 가계부채가 소폭 증가(0.6%, 전년 동기비)한 것과 달리 역내 취약차주 가계부채는 소폭 감소(△1.2%)

— 또한 취약차주 가계부채\* 잔액이 고금리인 할부·리스(-11.1%), 대부업대출(-10.4%)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등 대출상품 구성도 개선

\* 강원지역 취약차주의 대출종류별 증감률('23.2분기 기준):  
주담대 0.6%, 신용대출 -3.6%, 할부 및 리스 -11.1%, 대부업대출 -10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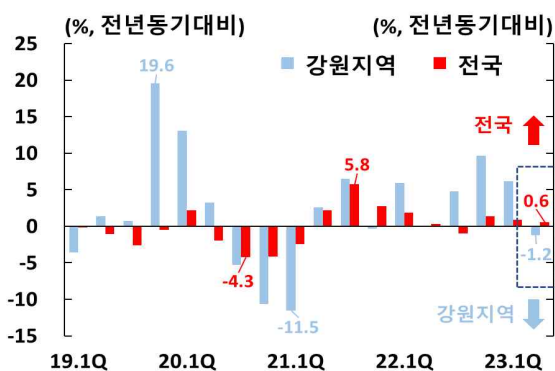
○ (최근 연체율 상승) 다만 강원지역 취약차주 연체율은 전국과 같이 빠르게 증가\*

\* '22.2~'23.2분기중 강원지역, 전국 취약차주 연체율 변화:  
강원(5.2% → 6.4%, +1.2%p), 전국(5.2% → 7.2%, +2.0%p)

— 생계 등의 목적으로 신용대출\*이 빠르게 증가한 상황에서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데 주로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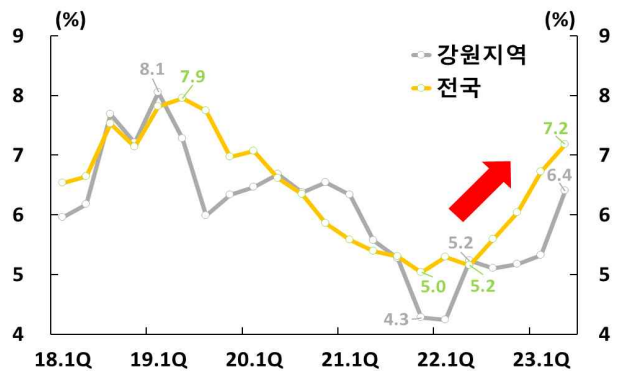
\* 취약차주는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에 주로 의존(68%)하고 있어 경기 침체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가중

취약차주 가계부채 증감률



자료: 한국은행 가계부채DB

취약차주 연체율



자료: 한국은행 가계부채DB

③ [연령대별] 반면 최근 강원지역 가계부채의 상당부분\*을 차지하는 고령층의 연체율과 채무부담(LTI, Loan To Income 기준)은 가파르게 상승

\* 강원 및 전국 연령별 가계부채 비중('23.2분기 기준) :

	청년층(40대 미만)	중장년층(40~50대)	고령층(60대 이상)
강원	22%	54%	24%
전국	27%	54%	19%

- (고령층 연체율 상승) 22년 이후 고령층 연체율이 음식·숙박업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해 급격히 증가\*

\* 강원지역 및 전국 고령층 연체율('22.2~'23.2분기):

강원지역 1.4% → 2.2%(+0.8%p), 전국 0.7% → 1.1%(+0.4%p)

— 이는 팬데믹 이후 관광객 급감, 식재료 가격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개인사업자 영업환경 악화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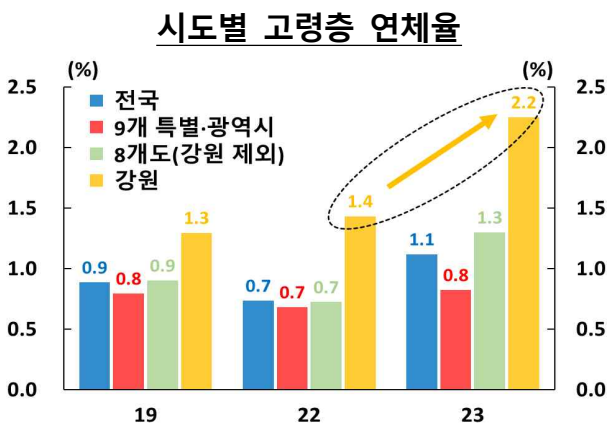
- (고령층 LTI비율 상승) 또한 여타 연령대와 달리 고령층은 개인사업자 대출\*을 중심으로 소득대비 부채가 빠르게 증가\*\*

\* 최근 1년('22.2~'23.2분기) 개인사업자대출 증감률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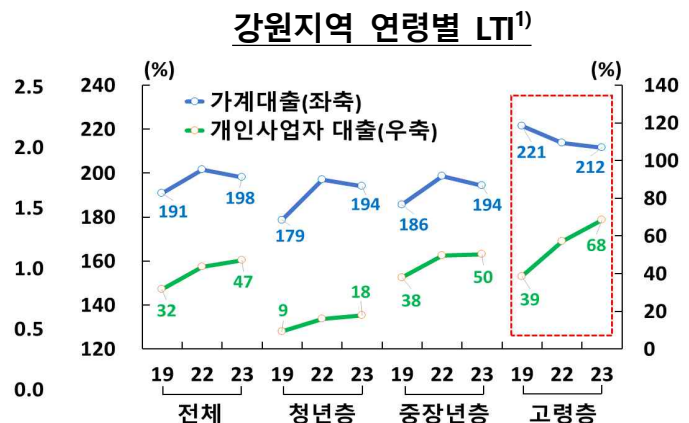
청년층 9.0%, 중장년층 0.4%, 고령층 17.7%

\*\*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부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경기회복 지연 및 부동산시장 부진 발생 시 대출 부실이 가계대출로 전이될 가능성

—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개인사업자대출 LTI비율이 19년말 대비 소폭 상승(각각 9%p, 12%p)에 그친 반면 고령층은 29%p 증가



자료: 한국은행 가계부채DB



주: 1) 가계대출 보유차주 기준

자료: 한국은행 가계부채DB



## 4. 종합평가 및 시사점

- **[가계부채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]** 강원지역 가계부채 상황은 양적·질적 지표 모두 전국에 비해 양호하나 GR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
- **[연체율 관리는 강화]** 다만 최근 취약차주와 고령층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점은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응해 나갈 필요
  - ① **(부실위험 관리)** 지역내 취약차주의 대환대출 유도, 금융기관 손실 흡수능력 개선 등을 통해 부실위험을 관리
    - **(대환대출서비스 활용)** 온라인·원스톱 대환대출앱(23.5.31일 개시)을 적극 홍보 및 개선하여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
    - **(손실흡수능력 제고)** 또한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, 예금 인출 사태 이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개선노력을 지속하는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
  - ② **(고령층 지원방안 모색)** 주택연금 수령자 확대, 금융규제 정비 등을 통해 노후소득 증대와 대출위험 완화를 도모
    - **(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유도)**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고령층에게 유리한 우대형 주택연금\* 가입을 통해 노후소득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
      - \*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, 1인 이상이 기초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%를 추가로 수령 가능한 주택연금 상품
    - **(대출규제 강화)** 중장기적으로 차주단위 DSR규제를 정착해나가고,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비
- **[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적정수준 유지 필요]** 도내 특정지역에서 가계 부채가 급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

<참고>

## 한국은행 가계부채DB 개요

- 한국은행 가계부채DB는 매분기 약 110만명 이상(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2.4%)의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(NICE 평가정보)로부터 수집하여 축적한 패널DB로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되었음
  - (모집단) 만18세 이상 내·외국인 거주자 중 신용이력보유자
  - (수록 정보) 개인별 고유 특성 정보(연령, 거주지, 신용점수, 소득수준 등), 금융거래정보(대출, 카드 사용실적 등), 신용도 관련 정보(연체, 채무불이행 등)
- 한편 가계부채DB 상 가계부채 규모는 표본자료에 표본비율의 역수만큼 확대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자료로 사용 및 분석에 유의할 필요

### 가계부채DB 분석시 유의할 점

- 가계부채의 지역별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별 및 차주별 미시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가계부채DB 데이터를 사용하나, 정부승인 통계인 「가계신용 통계\*」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소 차이가 있음\*\*에 유의할 필요
  - \* 「강원지역 금융기관 여수신동향」 상 가계대출 통계와 동일
  - \*\* 전국 가계부채 잔액(23.2/4분기말 현재):  
가계부채DB 기준 1,845.7조원, 가계신용통계 기준 1,748.9조원
- 가계부채DB 상 가계부채 규모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집한 표본데이터(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2.4%)에 확대배율(표본비율의 역수)을 적용하여 산출한 규모이므로 총량 통계(전 금융기관 대상)인 가계신용통계 상 가계부채 규모와 차이가 있음
- 가계부채DB 상 통계는 금융상품(할부금융 등 판매신용 포함) 및 금융기관 포괄범위(보험사, 여신전문회사 등 기타기관 포함), 지역 구분(차주 기준(↔ 점포 기준)) 등에서 가계신용통계와 차이가 있음
- 또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등록과정 등에서 결측, 오류, 특이치가 있을 수 있으며, 표본 데이터인 만큼 업권별, 상품별,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경우 대표성이 낮아짐에 유의할 필요